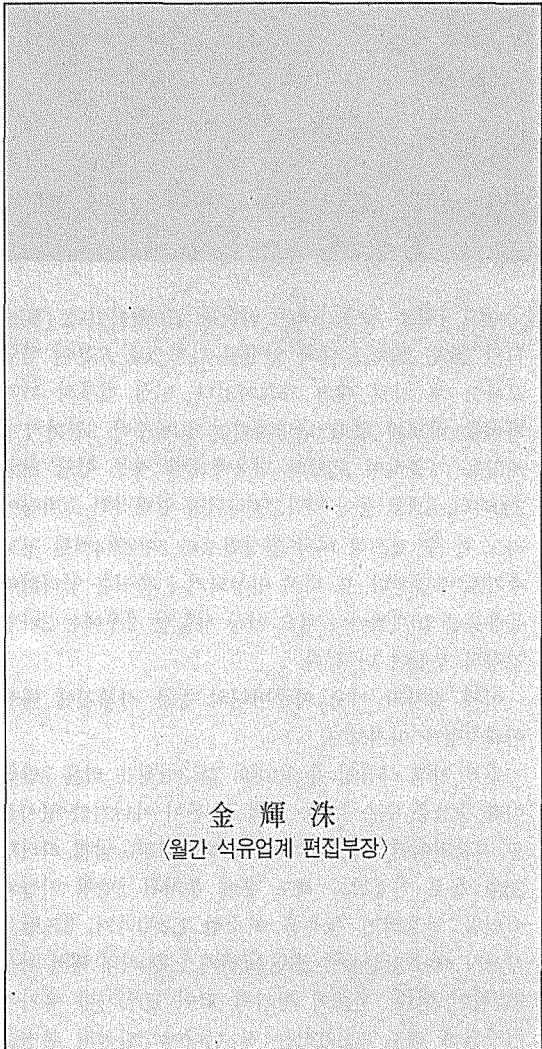


「아프리카의 백색 천사」 또는 「20세기의 성자」로 잘 알려진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의 식인종 추장과 어느날 전쟁에 관하여 대화를 나눴다. 당시는 독일이 지금의 이라크처럼 세계 연합군대를 상대로 한참 전쟁을 벌이던 중이었다. 그리

사재기의 손실



金輝洙
(월간 석유업계 편집부장)

고 그들이 한기롭게 대화를 나누던 곳에서 가까운 북아프리카 사하라에서는 탱크전이 사막의 태양만큼이나 뜨겁게 벌어지고 있었다.

슈바이처가 먼저 유럽의 전쟁에 대하여 식인종 추장에게 설명했다. 비행기에 의한 하늘 위의 전투, 코끼리보다 빠른 무쇠 덩어리 탱크, 화살촉만한 총알이 무수히 뿜겨나가는 기관총 등에 관하여 문명의 이기와 거리가 먼 추장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장황히 설명했다.

박사의 설명이 비교적 자세했는지 추장은 보도 들도 못한 서양인들의 전쟁무기에 대해 잘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몹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슈바이처 박사가 그에게 궁금한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했다. 그러자 추장은 「그런 무기로 사람을 얼마나 죽였나요」라고 물었다. 박사는 수십만명이 죽고 다쳤으며, 앞으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수백 수만명이 더 죽거나 다칠지도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추장은 몹시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백인들은 사람고기를 먹지도 않는다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나요」

끔찍한 가정이며 愚問에 愚答이겠지만 식인종 추장에게 냉장고 사용법에 대하여 알려준다면 각종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여 별별 일을 다 저지르는 문명인들처럼 그도 대규모 전쟁을 벌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 냉장고에 보관할는지도 모르겠다.

난리와 사재기는 영원한 커플인가

아무튼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각색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이기고 지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불행한 일들 중 하나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전쟁이다.

지구상에서 세계규모이든 국지적이든 전쟁이 없었던 평온한 날은 대략 60년 남짓 된다고 한다. 한반도 4반세기 역사 동안에도 평화로왔던 기간은 단지 260여년밖에 되질 않는다. 전쟁에 시달렸던 기간이 역사의 9할이며, 남부럽지 않은(?) 난세를 겪은 셈이다. 자기 세대에 난리를 안 겪고 무사히 생을 마치는 것만도 복 중 복이라 할만치 이 땅에도 내우의환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전쟁에 대해 심한 거부감과 함께 남의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민감하고도 수선스런 반응들을 보인다. 이번 페만의 전쟁에서도 놀란 참새떼들처럼 너도 나도 수선을 부리기는 마찬가지였다.

묘한 일은 바로 그 수선스런 모습의 대표적인 예로써 필수품 사재기를 한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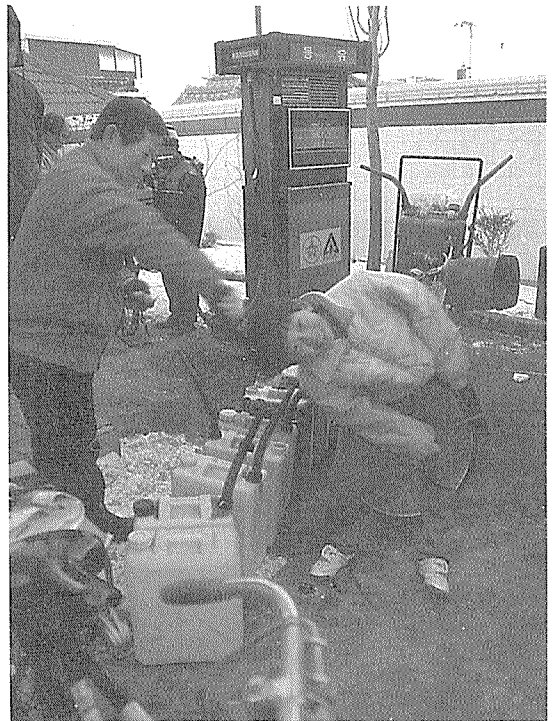
마치 사재기 풍토가 국민성으로 자리 잡은 듯 홍수 때도 사재기, 남의 나라 전쟁을 보면서 제일 먼저 '사재기 해야지'하는 심리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가 보다.

국민학생 산수 실력으로도 사재기는 손해

전쟁에 대한 일촉즉발의 풍문이 무성하던 무렵 필자의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가 찾아와 전쟁이 나면 분명 석유파동이 뒤따를 것이므로 등유통을 최소한 10개 정도 사서 기름을 비축해두어야 한다고 심각한 표정으로 충고했다. 좋게 말해 비축이지 사재기 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게 들렸다.

어쨌든 등유통이 얼마나 하나고 물었더니 20리터들이 통 하나에 2천8백원, 3천원 하며 그것도 구하기 힘들어 조만간 웃돈을 주어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아주머니의 말대로라면 지금쯤 4천원은 주어야 통을 살 수 있을 듯 싶다.

그 아주머니가 돌아 간 후 사재기의 잘잘못을 떠나 우선 수처로 손익을 따져보았다.



당시 1월초 등유가격은 리터당 238원이었다. '90년 11월 25일, 28%로 대폭 인상된 가격으로 오른지 한달 보름도 채 안된 때의 가격이었다. 인상 전후의 가격 차이를 비교해 볼때 난방시기인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을 기준하여 35평의 단독주택일 경우 한달 평균 200리터, 6개월 동안 약 1,200리터를 일반적인 소비량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략 인상전보다 6만2천4백원 정도 추가로 부담된다. 또 다시 인상되거나 품귀를 염려하여 등유통을 10개씩이나 필요 이상 사들일 경우에는 3만원 가량의 부담이 더 는다.

이제 필자의 이웃 아주머니의 등유 사재기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져보자.

필요 이상 사들인 통 10개의 값 3만원은 비록 3만원이라 중산층 수준에게는 그리 큰 돈이 아니지만 일시불로 지불되어야 하는 돈이다. 또 다시 10% 남짓 리터당 25원 꼴로 인상된다 해도 통에 투자된 3만원 이상의 차익을 얻으려면 등유를 최소한 1,200리터, 6드림은 사재기 해야 인상차액 25원 곱하기 1,200리터 해서 겨우 3만원이 된다. 전쟁이 장기화 되어 20%가량 유가가 인상된다 해도 600리터는 산 뒤에야 3만원의 본전을

찾을 수 있다. 1,200리터라면 6개월, 600리터는 3개월 쓸 량과 맞먹는다. 그 정도라면 이미 추운 겨울은 가고 꽃피는 봄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사재기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안도감과 이기적인 포만감 정도일 것이다. 이를테면 이웃이 잠시 잠깐 기름이 떨어졌을 때 찢찢매는 모습에서 느끼는 안도감과 남들 추울 때 나만은 따뜻할 것이라는 이기적인 포만감 말이다.

또 한번 끔찍한 가정이지만 이웃이야 어찌됐든 그렇듯이 남의 불행을 통해 안도감과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앞서 말한 식인종 추장이 대형냉장고를 십분 활용하여 못된 짓을 한 뒤 느끼는 감정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실제로 못 사람들의 사재기 때문에 시류를 뒤쫓지 못한 일부의 사람들이 난방용 등유를 구하기 힘들어 곤란을 겪고 있다. 이웃 아주머니의 말을 고분히 듣지 않은 필자도 가끔 곤란을 겪은 바 있다.

이웃이 추위에 떨 때 내가 얼마나 따뜻할는지? 만에 하나 난방용 기름의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어 사재기를 못하고 순리대로 지내던 사람들이 생활에 많은 곤란을

겪을 때 얼마나 안도감과 포만감을 느낄는지? 아마도 자기 집앞에 유전이 있어 펌프질만 하면 기름이 나온다는가 하지 않는 이상 그런 느낌들도 남들보다 몇날 며칠 더 느낄 뿐 지극히 일시적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학생 수준의 산수 실력만으로도 잠시 계산해 보면 손해인 것을 알테고, 손해를 불사하고 얻은 안도감과 포만감이 잠시 잠깐일 뿐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텐데 왜 번번이 그렇듯 수선을 부리는 걸까? 이제 외국의 경우가 어떻고, 정부 불신폭조가 어떻고, 집단적 이기주의라는 등 비판만을 위한 비판은 필요 없을 듯 싶다. 다만 한가지 제언을 한다면 이제는 적어도 나의 행동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잠깐이라도 생각해보고 그 어떤 행동을 취했으면 한다. 국가경제가 어떻고, 정부가 어떻고 거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다. 그저 나의 이기적 행동, 나의 생각없는 행동이 나의 이웃을 불행하게 하고, 생활에 곤란을 겪게 한다는 사실만을 이즈음 모두 함께 한번쯤 돌이켜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 明心寶鑑 □

待客은 不得不豊이요
治家는 不得不儉이니라.

〈손님의 대접은 불가불 풍성해야 하고,
집안의 살림은 불가불 검소하게 해야 한다.〉

사람의 집에 손님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 집의 인심이 그만큼 후하기 때문이다. 또 이런 가정은 대개 행복하고 부유하게 산다. 내 집을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을 잘하는 것은 하나의 예의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족들의 생활은 검소

하게 해야한다. 부지런히 일하고 검소한 생활로 절약하는 데서 부유한 생활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영국의 존 레이는 〈근면은 부유의 오른손이요, 절약은 부유의 왼손이다〉라고 말했다.